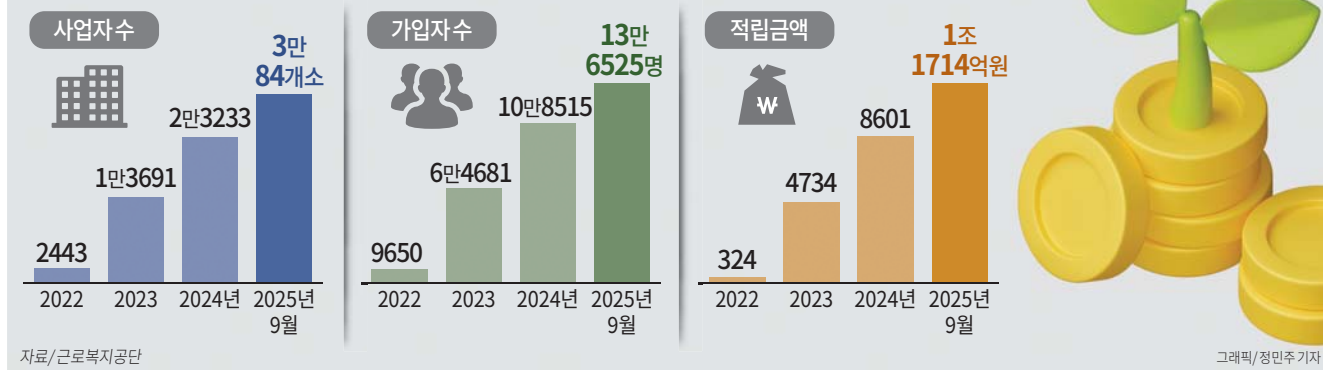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현황



출범 3년 ‘푸른씨앗’ 3만곳 가입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근로복지공단, 안정 운용 효과
3만 사업장·13만 근로자 가입
정부 지원·수수료 면제 힘받아

30인 미만 한정, 적용 범위 과제
취약계층·노무제공자 보장 요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가 출범 3년 만에 3만 개 사업장이 가입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계입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부 지원책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푸른씨앗이 9월 1일 기준 연 수익률 8.94%,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 사업장은 3만84개소, 근로자는 13만6525명에 달하며, 적립금은 1조

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도입 후 짧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안정적 운용과 함께 눈에 띄는 수익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푸른씨앗의 연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9%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이 같은 수익률을 달성해 퇴직급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은 제도 성장 요인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운용 수수료 전면 면제 △간편한 가입 절차를 꼽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더뎠던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입 사업장과 적립금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실질적 혜택이 큰 푸른씨앗에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사업주가 불분명한 노무제공자 등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푸른씨앗 적용 범위가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공단은 향후 가입 문턱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와 전국 64개 공단 소속기관에서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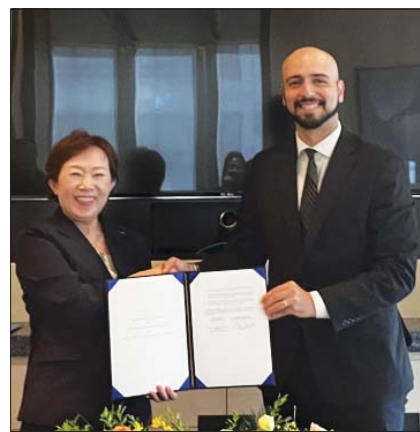
KIAT, 중남미 저탄소 전환 협력 강화

중남미 개발 등 전환 위한 협력 갱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KIAT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DB와 ‘혁신기술 및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전환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지역 최대 국제금융기구로, 경제·사회개발과 역내 통합을 지원해왔다. 현재 4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200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이다.

양 기관은 2022년 9월 첫 협약을 맺은 이후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점 구축사업을 포함해 총 4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과나하섬 사업은 148억원 규모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전력 수급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해당 사업



민병주 KIAT 원장(왼쪽)과 안드레 소아레스 IDB 총재실장과 MOU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T

이 마무리되면서 협력 성과의 후속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갱신 협약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기반시설, 희소금속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창의적 AI 아이디어로 국민 삶 안전하게”

KEIT, ‘AI 라이프 챌린지’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KEIT는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00일간 국민 참여형 개방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인 ‘AI 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이나 사회문제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개발자가 이를 AI 기술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정책·산업 수요 중심으로 기획되던 것과 달리, 국민 체감형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는 ‘상금형 R&D(P prize-based R&D)’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는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는 ‘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AI 기술로 구현하

는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아이디어 공모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된다. 이후 11월 3일부터 한 달간은 솔루션 챌린지가 열려 실제 구현 결과를 겨루게 된다. 최종 순위와 결과 발표는 12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총 상금 규모는 1500만 원 상당으로, 각 부문 입상자에게는 KEIT 원장이 수여된다. KEIT는 이번 행사가 생활밀착형 AI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참여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영훈 “개정 노조법, 불법파업 용인 아냐”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법 첫 소통… 대기업 23곳 참석
김영훈 “경영계 우려 충분히 인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개정 노조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뒤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대기업이 참석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9월 관보게재 이후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영상 예측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총, 압찬, 유로잡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온 만큼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현장의 우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와 함께 표준 교섭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마련하고, 업종별 원하청 관계를 점검해 상생 교섭을 촉진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

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중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민관 협력 앞세워 한우 해외시장 공략

한우 수출 확대… UAE 진출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민간 업체 등과 ‘한우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 한우 수출 동향과 전략 ▲중동 수출 추진 경과와 계획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등록 절차만을 남겨둔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인증 도축장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또 두바이 런칭쇼 개최, 두바이 민관협업센터 개소, 수입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중동·동남아 등 유망시장에 더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으로 한우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참석자들은 한우 수출이 국내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시장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브랜드 마케팅 강화 ▲검역문제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 정부·aT·농축협·업계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축협과 수출업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